

## 우수 직원 추천

○ 선정직원 : 어르신청소년과 “이복희” 주무관



“당신을 ‘고독사’로부터 지켜드립니다. 방1개당 월 300~500엔이면 시신 처리, 집청소, 유품정리까지 전부 다 해드립니다.” 2015년 9월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내놓은 ‘고독사 특화 상품’ 선전 문구라고 한다.

고독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의 문구는 비단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. 동작구 또한 어르신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.4%를 차지하고 있어, 홀몸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.

이런 어르신 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‘이복희’ 주무관은 관내 홀몸어르신 11,700명 중 8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건·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노인돌봄기본·종합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있다. 또한 사회적 교류 단절로 자살위험이 높은 60명의 어르신에게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어 자연스러운 돌봄 체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달의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.